



평균수명 세계최고의 일본 결핵 · 새로운 심각성 제기

### 日本人 평균수명 세계최고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79.1세, 여자는 82.1세를 기록해 일본이 선진국들중 가장 높은 평균수명을 가진 국가로 나타났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

지난 86~87년 기간동안 12억의 인구를 가진 33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WHO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의 평균수명은 73.7세로 나타났는데 이 중 남자는 70.1세, 여자의 경우는 77.2세를 기록했다고.

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일본을 비롯 프랑스·스웨덴·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모두 80세 이상을 기록했으며 또 매년, 사망하는 전 세계의 1천 1백만명 가운데 약 3백 40만명이 65세도 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 햄버거 치즈서 항암성분 발견

일부 발암가능성 전면부인……혼란 예상

햄버거와 치즈속에 들어있는 지방분이 쥐의 위종양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햄버거에 들어가는 구운 쇠고기가 쥐의 위종양을 막아주며 치즈에는 항암성 지방산이 드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최근 외신이 보도했다.

쇠고기와 치즈에서 발견되는 이 항암성 화학성분인 결합리놀렌산(CLA)은 인체의 혈액이나 모유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며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다.

이 연구책임자인 美위스콘신大 식품안전성연구소 소장인 마이클 파리지씨는 쥐를 두 그룹으로 분류, 1그룹의 쥐에겐 CLA를 주고 2그룹의 쥐에겐 아무 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량의 발암성 물질을 모든 쥐들에게 투여했다.

이러한 실험을 4주동안 매주 반복한 결과 1그룹의 쥐는 평균 5종류의 위종양을 나타냈으며 20주후 쥐들은 모두 죽었다.

파리지씨는 이 실험을 통해 CLA가 유전정보나 염색체의 손상을 막아줌으로써 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이론화했다.

이는 3년전 일부 과학자들이 잘 구워진 햄버거의 어떤 화학적 성분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던 것과 상치되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86년 5월 캘리포니아주 로렌스 리버모어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굽

거나 튀긴 고기의 화학적 성분이 쥐에게 암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 또는 염색체의 손상을 가져온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쥐가 아닌 사람에게 대한 위험도는 안 알려졌지만 일단 고기를 바삭 굽지말도록 권고했다.

또한 쇠고기와 치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인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은 심장병과 몇종류의 암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미 알려졌었다.

미국립암연구소와 우유업체들이 공동으로 연구비를 투자한 이 연구를 수행한 마이클 파리지씨는 『물론 사람들에게 치즈와 햄버거가 위암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파리지씨는 『자신의 연구가 음식에는 대체로 유해한 성분의 작용을 상쇄시키는 좋은 성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어느 음식을 특별히 가리지 않는 균형잡힌 식사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암협회의 부회장인 존라즐로박사는 『햄버거의 CLA가 암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파리지씨의 발견은 지금까지 특정 음식이 암에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고 단정짓는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햄버거나 치즈뿐 만아니라 당근·양배추·콩·호두 등에도 항암성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결핵,아직 퇴치되지 않았다.

美 디시 스나이더박사 심각성 경고

이미 과거의 질병으로 간주됐은 결핵이 최근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런 현상의 1차적 원인은 금세기 최악의 불치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라고 미국 의사들이 경고.

美애틀랜타 주립 질병통제센터의 결핵담당국장 디시 스나이더박사는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결핵의 증가에는 AIDS가 두드러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는 많은 AIDS감염자가 결핵에 걸려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나이더박사는 AIDS감염자는 면역체계의 허약성으로 인해 특히 결핵에 걸리기 쉽다고 말하고 따라서 모든 결핵환자는 AIDS테스트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결핵 완치가 가능한 지난 53년부터 84년까지 미국의 결핵환자수는 급격히 줄었다가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 바야흐로 미국이 결핵퇴치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그 심각성을 경고.

최신 통계에 의하면 결핵감염자수는 전세계 인구의 20내지 40% 수준인 10억내지 20억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000만내지 2,000만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년 발생, 300만내지 50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고.